

2026.04.22

2차전지\_Issue Comment



# 축적된 상승 근거들의 가시화

## 이제는 주가로 연결될 시점

최태용 자동차·2차전지  
02-709-2657  
tyc@ds-sec.co.kr

### 전일 섹터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고무적인 이유

전일 섹터 전반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시현했다. 연초부터 3월까지 전고체 테마 중심의 상승과 일부 종목 간 개별적 움직임이 있었으나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의 온기 확산이 관측된 건 실로 오랜만이다. 1Q26을 기점으로 EV 둔화 영향은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실적 바닥을 지나는 시점에 연초부터 축적해온 상승의 근거들이 점차 가시화된다는 점을 감안 시 추세적 상승의 초입이라는 판단이다. 상승 지속의 근거는 크게 4가지로 1) 견조한 리튬 가격 상승세, 2) 빅테크 ESS 발주 기대감, 3) 서방 시장의 에너지 안보 정책 가시화, 4) BEV 수요 반등 기대 등이다.

### 리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만한 개연성도 충분

리튬 가격은 중국 배터리 수출세 환급금 폐지에 따른 1Q26 Pull-in 수요 소멸효과를 상쇄하고 \$20.6/kg(ex-VAT)까지 상승했다. 중국 광산 재가동 지연이 주요하며 장기화 개연성도 충분하다. 서방 리튬 제련소의 투자 유인이 \$25+/kg(ex-VAT) 인 점을 감안 시현 가격에서는 중국 의존도 축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방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광산 재가동을 늦추며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 양극재 업체들을 선두로 충당금 환입과 판가 상승으로 추정치 상향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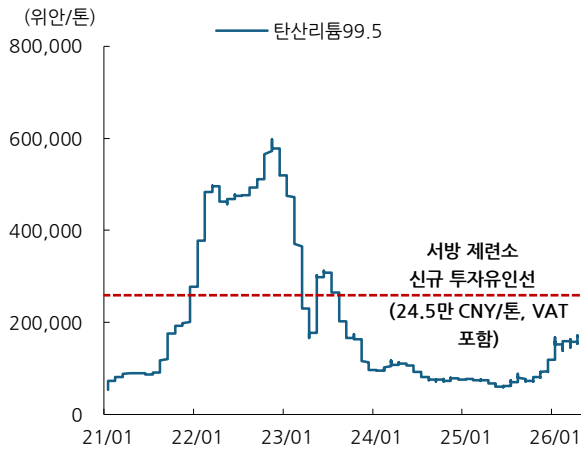
### 미국 ESS의 수요 주체 다변화 및 속도전 돌입이 견인할 리레이팅

한국 ESS 밸류체인은 수요 상향 조짐은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4/20일 미국은 전력망 인프라/장비/공급망을 포함한 DPA(국방물자생산법)를 발동했다. 연방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정부 구매/절차 간소화가 골자다. ESS는 대상 품목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다. 그러나 이연 프로젝트 조기 진행을 포함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으로 추가적인 계통 안정화향 수요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더불어 ESS 수요 주체도 유틸리티에서 IT 업체로의 다변화가 이전보다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지산지소 요구가 공식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삼성SDI는 T사향 수주 이후 AWS와의 미팅을 통해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수주 주체 다변화 흐름의 가장 핵심은 속도전인 만큼 실적 기반의 주가 리레이팅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미국 BEV 수요도 지난 GM의 코멘트와 달리 검색량 등 지표 증가세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조기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상승 재료들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난 자료(3월 30일, 지역별 정적점검)에서 서술했듯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기조 강화 흐름은 한국 배터리의 견고한 업황 반등 수혜 강도로 연결될 전망이다. 비로소 업종 Overweight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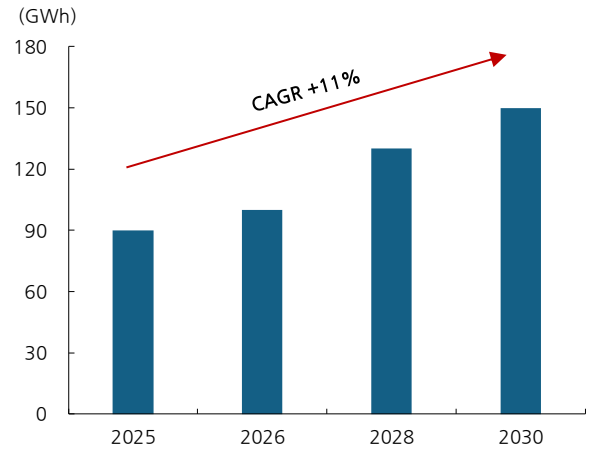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탄산리튬(99.5%, 배터리 등급) 가격(VAT 포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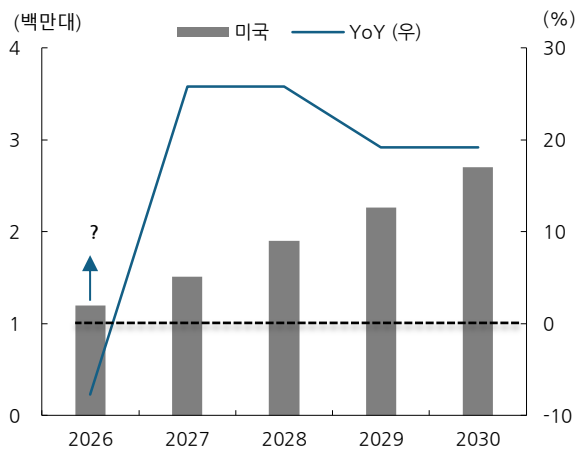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ESS 수요 전망



자료: 삼성SDI,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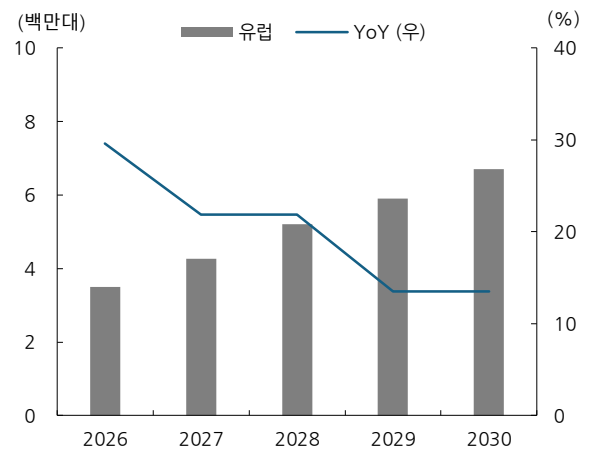
그림3 미국 BEV 신차 수요 전망



자료: 기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7과 '29 전망치는 자료에 제시된 '26-'28, '28-'30 CAGR을 적용한 예상치

그림4 유럽 BEV 신차 수요 전망



자료: 기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7과 '29 전망치는 자료에 제시된 '26-'28, '28-'30 CAGR을 적용한 예상치

표1 DPA(Defense Production Act, 국방물자생산법) (2026.04.20)

항목	세부	비고	
시행 주체	-에너지부 (DOE) -시행 계획 발표에 3~9개월 이내 소요 예상	-코로나 의료장비(1개월)를 제외하고는 히토류(트럼프 1기) 4개월, 핵심광물(바이든) 7개월, 청정에너지 5개 기술 (바이든) 8개월 소요	
법적 근거	-DPA 303조 하에 국가 안보 필수 품목 지정 -통상 요건 면제(절차 간소화)	-구매 가시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CAPA 확대 가속화가 골자	
대상 분야	-전력망, 대규모 에너지, 석탄/석유, LNG	-에너지 인프라 분야 5개 연속 지정은 이례적	
지원 수단	-정부 구매, 구매 약정, CAPA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기타		
지원 규모	-OBBBA 기준 확보 예산 내 재배분	-신규 세출은 아니며 분야별 세부 배정액은 미공개	
선정 기준	-미국, 캐나다 소재 생산자 -별도 시행계획(FOA, 예정)에서 구체안 확정	-호주/영국 소재 생산자도 별도 협정(AUKUS, DPA 파트너 지정)으로 일부 적용	
세부	전력망	-송배전 인프라 : 변압기, 송전선/전도체, 변전소, 전기 강판, 관련 원자재 및 제조장비 -전력 제어 기기 : 고압 차단기, 전력제어 전자기기, 보호계전기 시스템, 커패시터뱅크	-이연된 유틸리티급 ESS 발주의 순차적 정상화 기대 가능  -PCS/EMS가 포함됨에 따라 ESS SI 및 PCS 사업자 직접 수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전주기	-구체적 품목은 부재하나 대규모 ESS 프로젝트 관련 파이낸싱/인허가에 대한 가속화 여지 상존해 DOE의 시행계획 확인 필요

자료: 백악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